예원예술大 포천시와 MOU 체결

2010년까지 1천200명 규모로 개교 예정

포천시는 10월19일 박윤국 시장, 예원예술대학교 차종권 총장,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및 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원예술대학교 포천캠퍼스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예원예술대학교는 1단계로 포천시 일동면 일원에 포천캠퍼스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2010년까지 1천200명 규모로 개교할 계획이며, 2단계로 2천명 규모의 대학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예원예술대학교는 포천캠퍼스에 문화관광학부, 스포츠학부, 만화게임영상학부, 공연음악학부, 미술디자인 학부 등 특화된 문화예술관련 학부를 설립함은 물론 캠퍼스 조성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포천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교육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천시 역시 포천캠퍼스 조성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대학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비롯해, 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제반사항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포천시 관계자 또한 예원예술대학교 포천캠퍼스가 포천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예원예술대학교와 포천시는 양해각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포천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어느 목수의 이야기

이보용 본지자문위원장

한 나이 많은 목수가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고용주에게 지금부터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가족과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용주는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되어 극구 말렸지만 목수는 여전히 일을 그만 두고 싶어했습니다. 목수는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고용주는 훌륭한 일꾼을 잃게 되어 무척 유감이라고 말하고는 마지막으로 손수 집을 한 채 더 지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목수는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일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일꾼들을 급히 모으고는 조잡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을 때, 고용주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을 보는 대신, 목수에게 현관 열쇠를 쥐어주면서 "이것은 당신의 집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이 저를 위해 일해준 보답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목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일 목수가 자신의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수리를 할 필요가 없는 튼튼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수리할 필요가 없는 훌륭한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보다는 단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차선책으로 견디려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상황, 자신이 대충 지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결코 유쾌하지 못한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나의 집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못을 박고 판자를 대거나 벽을 세우는 매 순간마다 정성을 다해 지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만들어 갈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 하루만 살게 되더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과거에 선택한 것이며 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은 바로 지금의 태도와 선택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옮겨온 글—

(문의 011-342-5834)

홀스타인 품평회 전국 3연패 달성

포천 미래목장 양영학, 노곡목장 최명회 부문별 최우수

포천시는 2005, 2006년에 이어 올해도 주니어챔피언(미래목장 양영학), 준시니어 챔피언(노곡목장 최명회)등 부문별 최우수축 5두, 우수축 6두 그리고 4-6위권 6두가 입상하였으며, 전국시군 종합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차지하여 검정-개량사업 10년만에 3년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발됐다.

2007년 한국홀스타인품평회가 10월10일부터 2일간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선발된 210두의 젖소가 출품되어 12부로 나뉘어 경합을 벌인 이번 대회에 포천시는 지난 9월 10일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입상축을 중심으로 20농가 35두를 선발해 출품했다.

이번 2007년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 전국대회에서는 젖소의 개월령에 따라 총 12부로 나뉘어 진행 되었고 종합선발의 성격을 갖춘 지역대항(카운티 허드), 베스트 쓰리 피메일, 리딩 콘테스트 등 3가지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카운티 허드(County Herd, 지역대항)는 그 지역에서 최고 우수한 경산우 3두와, 미경산우 2두를 선발하여 경합을 벌이는 지역의 개량 우수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며, 베스트 쓰리 피메일(Best Three Female)은 한 목장에서 우수한 젖소 3두를 출품하여 최고의 체형을 보유한 농가를 선발하는 것이다.

또한, 리딩 콘테스트(leading Contest)는 목장의 자녀들(초, 중, 고등학교)을 중심으로 출품우의 순치도 및 출품자와 출품축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등출품우-출품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콘테스트이다.

포천시는 3가지 부분에 모두 출전했으며, 종합 평가에 해당하는 카운티 허드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최우수 개량시군으로 선발되었으며, 갈골 목장의 장동찬씨의 아들 장영준(의정부고 3년)군이 리딩 콘테스트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다.

포천시는 2005, 2006년에 이어 올해도 주니어챔피언(미래목장 양영학), 준시니어 챔피언(노곡목장 최명회)등 부문별 최우수축 5두, 우수축 6두 그리고 4-6위권 6두가 입상하였으며, 전국시군 종합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차지하여 검정-개량사업 10년만에 3년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발됐다.

이로써, 포천시는 양적인 측면의 축산이 아닌 질적인 부분에서도 전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명실 공히 낙농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시민과 함께 하는 든든한 이웃

포천경찰서, 제62주년 경찰의 날 행사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10월19일 경찰서 전정에서 창설62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경찰관 및 협력단체장을 비롯한 관내 내빈을 초청, 기념행사를 가졌다.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10월19일 경찰서 전정에서 창설62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경찰관 및 협력단체장을 비롯한 관내 내빈을 초청,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전몰경찰관에 대한 묵념, 유공경찰관 및 시민에 대한 포상, 대통령 치사를 경찰서장이 대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경찰의 혁신성과와 역동적인 활동상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물 상영으로 나날이 발전, 변화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식후 경찰발전을 위해 음지에서 노력하는 협력기관 및 단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다과회가 마련됐다.

다과회 자리에서 김귀찬 포천경찰서장은 "제6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전 직원이 다시금 각오를 다져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는 든든한 이웃이 될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양주·연천 소방서 연내준공 어렵다

내년 3월 공사 완료계획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는 올해 말까지 양주시, 연천군에 신설키로 했던 소방서를 내년 3월 완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가 지연돼 공사가 7월에야 시작된 양주와 연천소방서는 연내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2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골조공사를 겨울 전에 마무리하면 겨울에도 실내 마감공사 등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공사를 서둘러 진행해 내년 3월에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8일 양주시 백석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고가사다리차와 에어매트 등이 없어 7층에서 뛰어내린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자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소방서가 없는 양주·가평·연천 등 3곳에 286억여원을 들여 소방서 신설을 추진해 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제결혼자 합동결혼식 거행

포천시, 결혼이민자 3쌍 부부

포천시는 결혼이민자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동거부부들위한 '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을 11일 여성회관에서 개최했다.

포천시는 결혼이민자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동거부부들을 위한 '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을 11일 여성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포천에 거주하는 필리핀, 중국 등의 결혼이민자 가정 3쌍의 부부가 참가했으며, 최종규 전 포천문화원장의 성혼선언문 및 혼인서약서 낭독과 주례에 이어 반월어린이집 원생들의 축가로 성황리에 마쳤다.

시 관계자는"합동결혼식으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기념이 될 특별한 날이길 바란다"며 이민여성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건/사/고

6천만원의 재산피해 화재발생

10월16일 오후7시54분에 포천시 동교동 소재 이모씨의 섬유공장과 전모씨의 고무가공 공장에서 원인조사중인 불이 나 공장 2동 495㎡ 및 유압프레스 등 소실로 6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섬유공장 쪽 담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다는 전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사진은 불타고 있는 섬유공장)

공익근무요원 시청에서 성폭행하려다 덜미

동두천시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시청 내 화장실에서 여고생을 성폭행 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공익요원은 2005년 9월 여고생을 성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출소한지 10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 관리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동두천시와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인 A씨가 귀가하던 여고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청사 내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조사결과 B양은 격렬한 반항 끝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도망쳐 신고함으로써 위기는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당시 시청에는 4명의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설치된 CCTV에도 B양을 끌고 가는 모습이 잡히지 않아 관계당국의 허술한 경비체제가 문제되고 있다.

A씨는 성범죄 관리대상자로 분류돼 이미 실명까지 공개가 된 상태로 시청에 소속돼 공영주차장 관리를 맡아왔었다.

연천 점집 불 50대 숨져

10월16일 새벽 0시쯤 연천군 전곡읍 무속인 안 모(50) 여인의 1층 짜리 법당에서 불이 나 안씨의 시아주버니 고 모(50)씨가 숨졌다.

이 불은 법당 내부 99㎡를 모두 태우고 20분만에 진화됐지만 소방서 추산으로 2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인의 窓

변화 2

전영화(포천문인협회 회원)

점.
소박한 하나의 점
너와 나를
그리고
우리와 그들을
잇는 점
예고하며 다가오는 변화
그 흐름을 타고
망으로 거르고 걸러
함께 어우러져
4차원의 세계로 행군하는 무리
무엇이 그들을
한 무더기로 묶었는가
아 별에 오르는 길
변화의 물결
제4의 물결
그들과 나

〈감상노트〉

두 개의 점을 이으면 선(길)이 되고, 세 개의 점이 만나면 도형(모양)이 된다. 늘 선은 긴장과 탄력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도형은 항시 합치려 하는 근성이 있다. 선은 자유를 구속하려 들며 도형은 욕망을 채우려 든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적 변화와 문화의 창달은 선과 도형의 운동에서 출발한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선과 도형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의미는 선(길)과 도형(그릇)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목적이 달라진다. 그것이 모든 변화의 처음이며 끝이다.

안 익 수(시인)

*용경자의 세상읽기 · 20(끝)

용경자의 세상읽기를 마치며

오늘의 운세나 들여다보던 신문이 이렇게 매력적일 줄은 몰랐다. 어설프게 써본 글이 포천신문에 소개되면서 난 뿌듯함에 어깨가 우쭐하기도 했고 다시 한번 읽다보면 창피해서 어디론가 숨고 싶기도 했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욕심이 생기고 세상 앞에 당당해지는 자신감과 포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겼다.

또한 포천신문을 열심히 읽다보니 견문도 넓어지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생겼다. 특히 내 이웃의 따뜻하고 정겨운 미담은 중앙정보지의 무게를 벗어버린 신문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했다.

내 글을 통해서 남이 아닌 내 자신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나를 발견하고는 스스로 새삼 놀랐다. 모르고 살았던 내 자신의 부족함과 자존심에 힘들어하던 나를 스스로 치료하게 되었다. 그래서 난 문학이란 정신적인 치료를 해주는 의료행위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어느 누군가 내 손을 잡고서 하나의 지면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내게는 큰 행운이었음을 깊이 깨닫는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포천신문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부족한 글에 한번쯤 눈길이 머물러주신 독자 분들과 격려의 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포천신문이 포천시민의 풍부한 글로 가슴을 적셔주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가을, 명성산이 아름다운 것은 산세에 어울리는 아름드리 나무와 함께 작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리라 생각하며 내 존재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지혜를 얻고 내려온다. 산이 준 지혜를 통해 일보 더 정진하여 세상에 넘쳐나는 삶의 지혜를 찾아 또 다른 시도를 해 보리라 다짐해본다.